

순천만국가정원 'K-디즈니' 중심지로 거듭난다

5개월간 새 단장 4월 재개장
AI·애니메이션 디지털 요소 가미
'3대가 즐기는' 국가정원 탈바꿈

'K-디즈니'를 이끌 순천만국가정원이 5개월간 단장을 마치고 오는 4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순천시는 오는 4월 '우주인도 구경 오는 정원'을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 문을 다시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정원은 지난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과 함께 11월부터 새 단장에 들어갔다.

'생태수도 순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요소는 완성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요소를 가미해 '3대가 즐기는' 국가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우주인도 구경 오는 정원'의 첫 관문은 '꿈의 다리'가 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의 꿈을 타일 작품에 담은 이다리는 첨단 기술을 도입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노을정원과 키즈가든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정원박람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시크릿가든은 체험형 실감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K-디즈니, 순천'은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동천을 따라 원도심으로 확장한다. 순천시는 도시 전역을 산업 기지화할 목표를 세우고 권역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 기호발특특구 지정을 신청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원도심에는



축구장(7140㎡) 129개 면적에 달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이 'K-디즈니, 순천'을 이끌 핵심 기지의 면모를 갖추고 오는 4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국가정원 전경. <순천시 제공>

문화콘텐츠 산업 기지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배급까지 다양한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진다.

순천시는 원도심 중소 제작업체 입주 지원하며 상권 활성화도 꾀한다.

정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와 힘을 합쳐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에 속도도를 낸다.

오는 10월에는 문화콘텐츠 산업전을 열어 확장

하고 있는 지적재산권(IP)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제 학술대회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을 확장할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7개월 장정을 마친 뒤 노관규 시장을 필두로 순천시-시의회 미국 합동 연수를 추진하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노 시장은 연수를 다녀온 뒤 '디즈니' '픽사스튜디오' 역할을 할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는 'K-디즈니, 순천' 전략을 세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콘텐츠 시장은 국내 148조원, 세계 3292조원 규모에 달한다.

K-문화콘텐츠 수출액은 133억달러(17조7000억 원)를 돌파하며 이차전지, 가전 수출액을 넘었다.

미국 애니메이션에 있는 201만6528㎡(61만평)의 디즈니랜드는 연간 18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 명소다. 관람객을 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6만5700여 개에 달하는 관련 일자리는 애니메이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에 해당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취준생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문수로 청년지원센터 20벌 구비

여수시가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장 무료대여 사업의 일환인 '섬섬 옷장'은 여수시 문수로 KT건물 1층 청년지원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남녀 정장(셔츠, 블라우스 포함) 20벌이 구비돼 있다.

여수시 거주 또는 관내 대학생 재학(졸업자 포함), 청년(18-45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연 3회까지 1회 대여 시 1주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여 희망자는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면접연습을 위한 AI면접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완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여수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밑그림 소재전문과학관·상상놀이터 들어선다

전시콘텐츠 보고·자문위원회의

상반기 중 첫삽 2026년 완공

광양시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의 전시콘텐츠 최종보고와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건립에 속도를 내고있다.

광양시는 최근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단,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채울 전시콘텐츠 최종 보고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룡산 자락 중앙근린공원 내에 들어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국내 최초 소재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상상놀이터, 숲속야영장 등 가족형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공립 광양 소재(Material)전문과학관과 상상놀이터에 조성될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연면적 7010㎡(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은 기획전시관, 어린이전시관, 상설전시관 등을 갖추고 소재 원더월드, 소재의 힘, 소재의 비밀, 소재의 혁신 등을 테마로 '소재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여줄 전망이다.

상상놀이터는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연면적 2820㎡ 규모의 놀이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상상놀이터는 모험의 산, 비밀의 동굴, 감각의 바다, 마

법의 연못, 상상의 숲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된 실내놀이터와 실외놀이터인 상상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시물 최종 설계를 확정하고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전남도 건설 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올 상반기 사업을 착공해 2026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과학관과 상상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닌 체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며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과 상상놀이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과학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과학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장기 방치 빈집 철거
을 75동 정비...200만원 지원

고흥군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역의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75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철거비는 작년보다 33% 증가한 1동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붕이 슬레이트인 건축물은 환경산림과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구비해 빈집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인구행정팀)에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빈집 방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유자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부지 내 일부(부속건물) 건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마을의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 319개 지원책 수록
'전 군민 지원 시책' 제작 배부

보성군이 분야별 다양한 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4년 알기 쉬운 전 군민 지원 시책'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동안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를 책자에 수록해 체계화했다.

특히 기존의 부서별 또는 분야별 안내 책자와 달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19개의 각종 지원 시책을 총망라해 보건, 복지, 농림, 축산, 안전 등 17개 분야로 나눠 한 권에 담았다.

또 각 분야별 사업들은 신청 시기순으로 배열하고, 각 사업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를 간략하게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자는 각 읍면으로 배부했으며, 군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시책 정보가 한 권에 담긴 책자를 통해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잘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